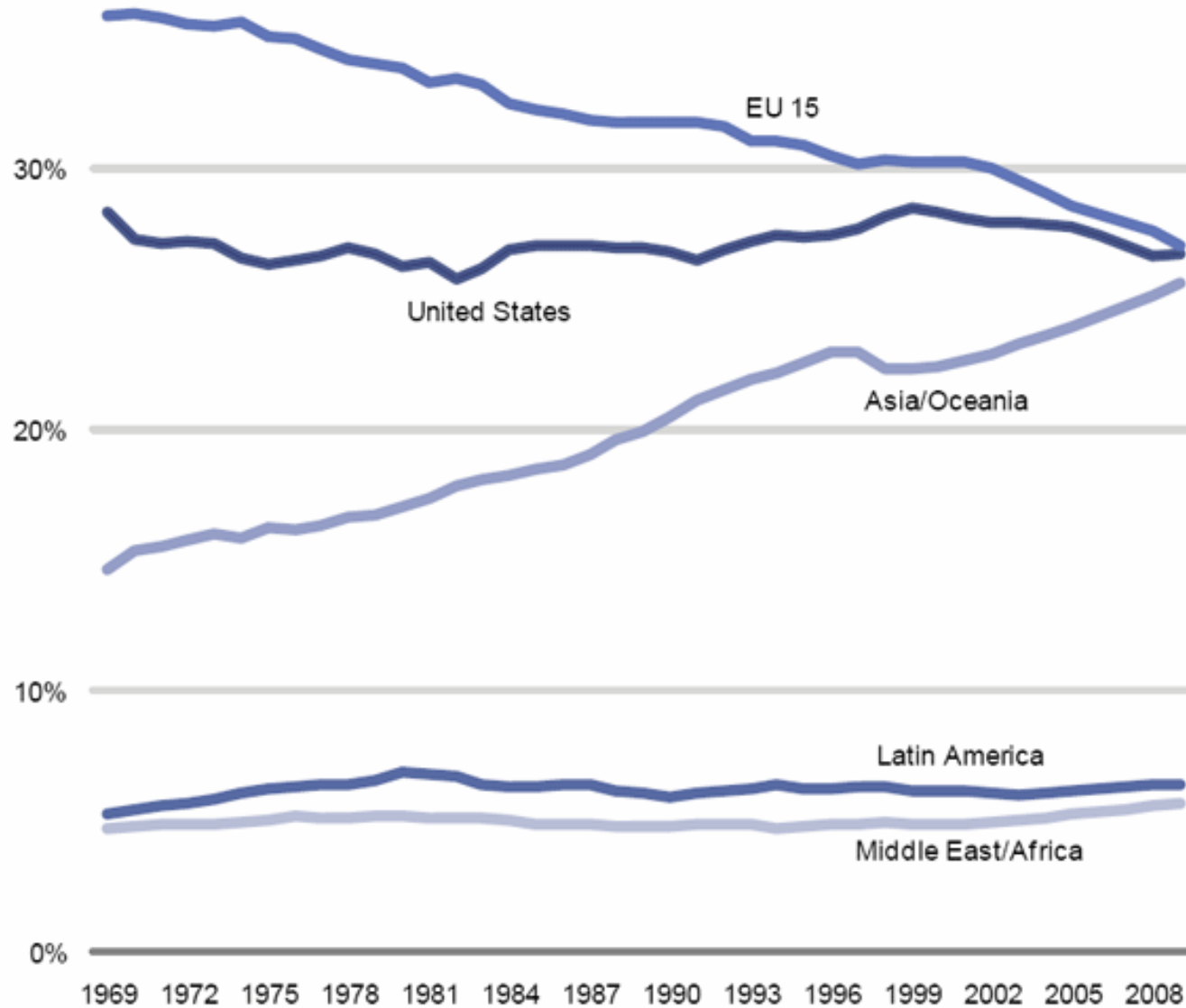


# 동북아 경제 협력과 미국의 태평양정책

발표자: 임재욱(한국해양대학교) [jaylim@kmou.ac.kr](mailto:jaylim@kmou.ac.kr)



## Share of World Gross Domestic Product, 1969-2009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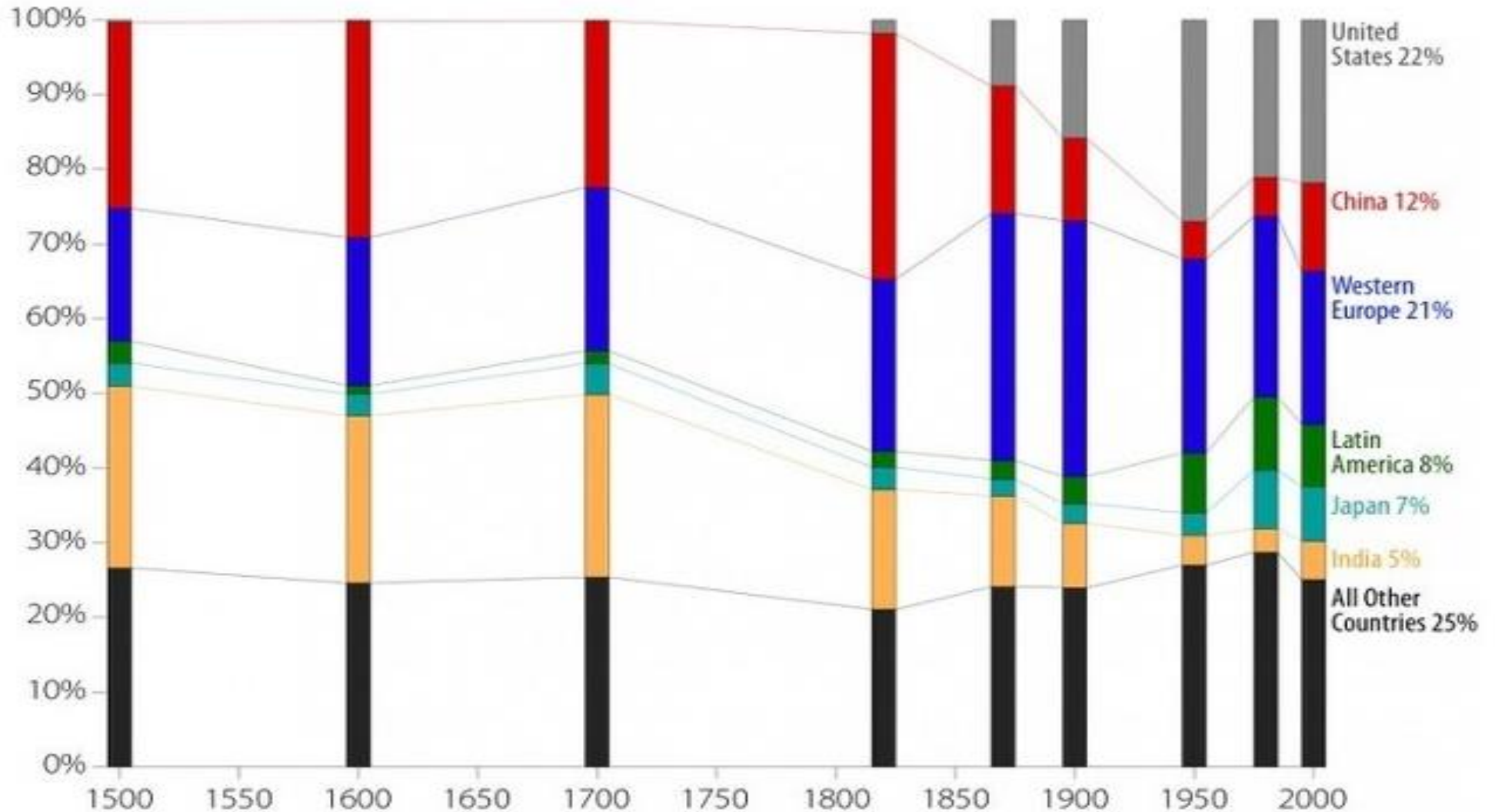
ENTERRISING STATES, NewGeography.com

- ▶ 세계 경제의 비중은 EU, US, Asia/Oceania가 4/3을 차지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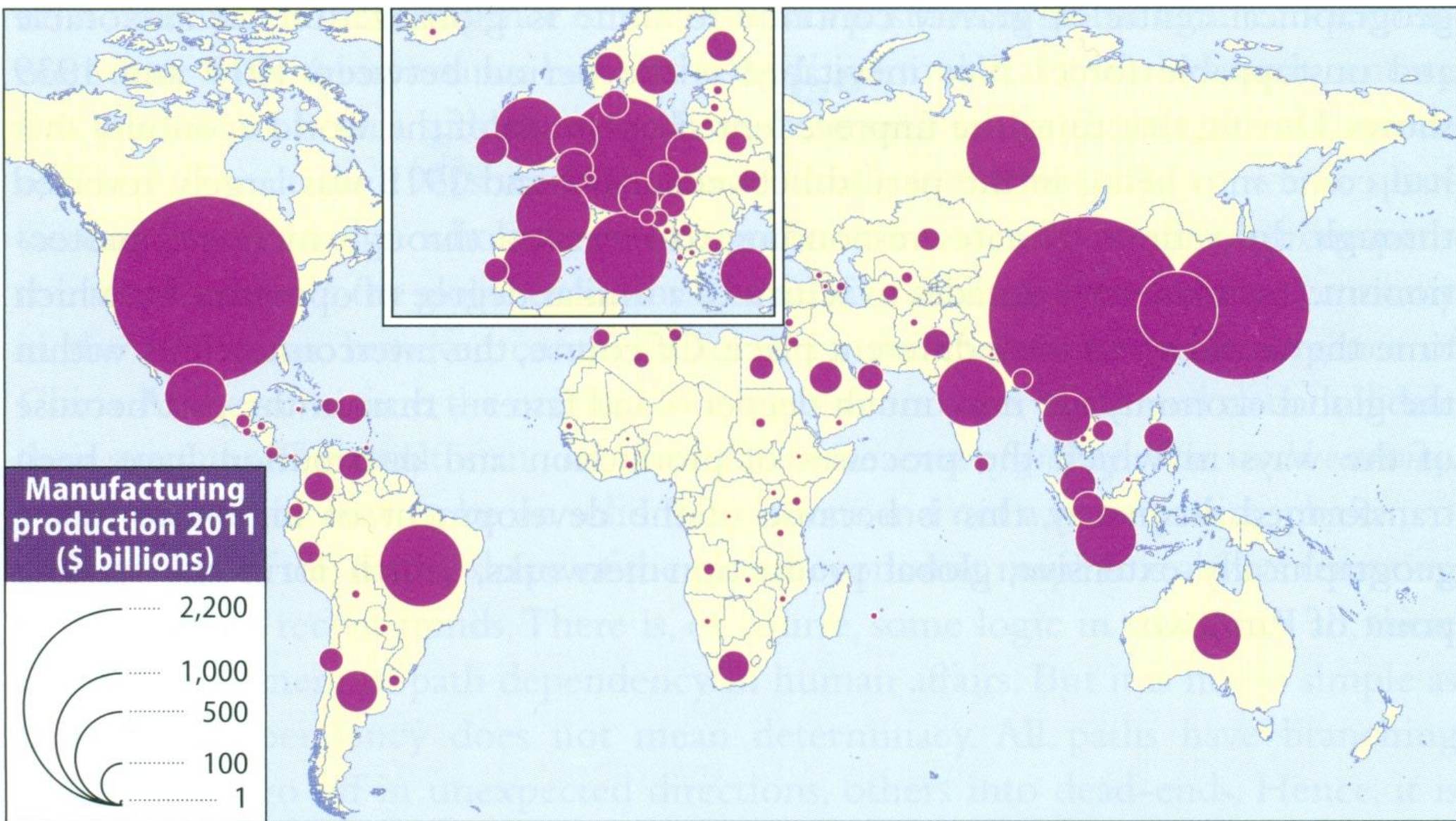


## Percentage of World GDP (last 500 years)

China, India, Japan, Latin America, Western Europe, and United State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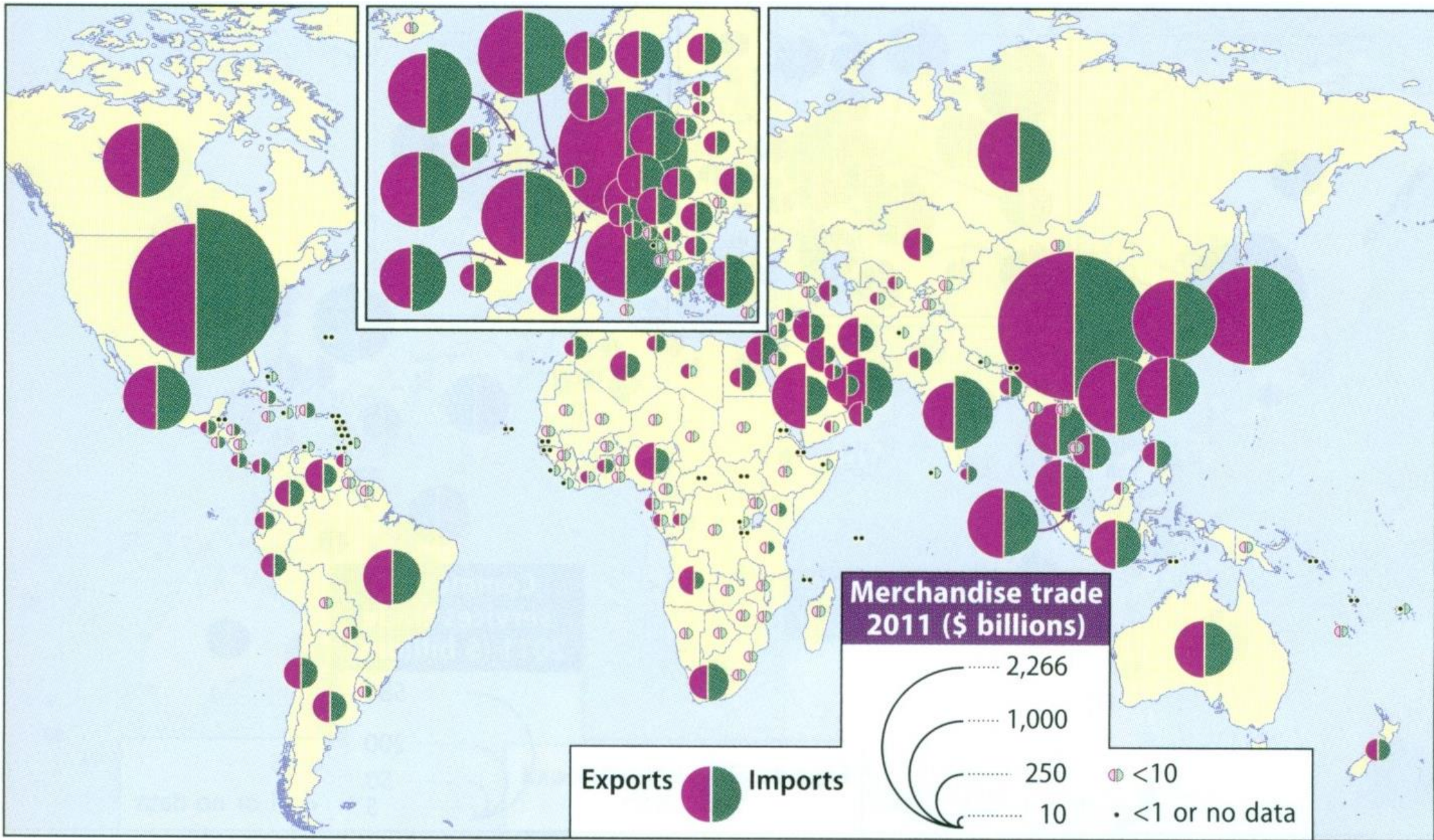




**Figure 2.13** The global map of manufacturing production

Source: calculated from World Bank, *World Development Indicators*, 2013: Table 4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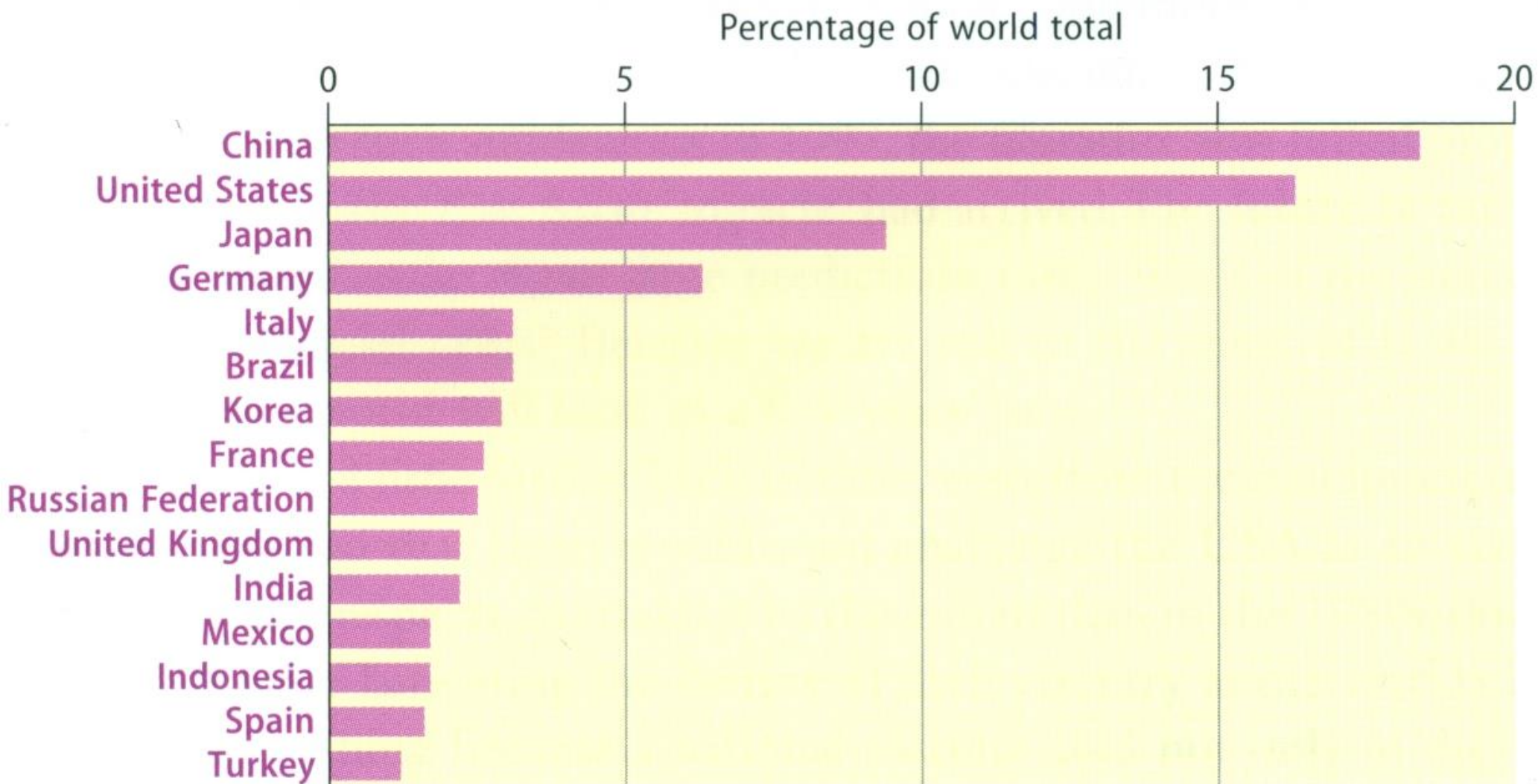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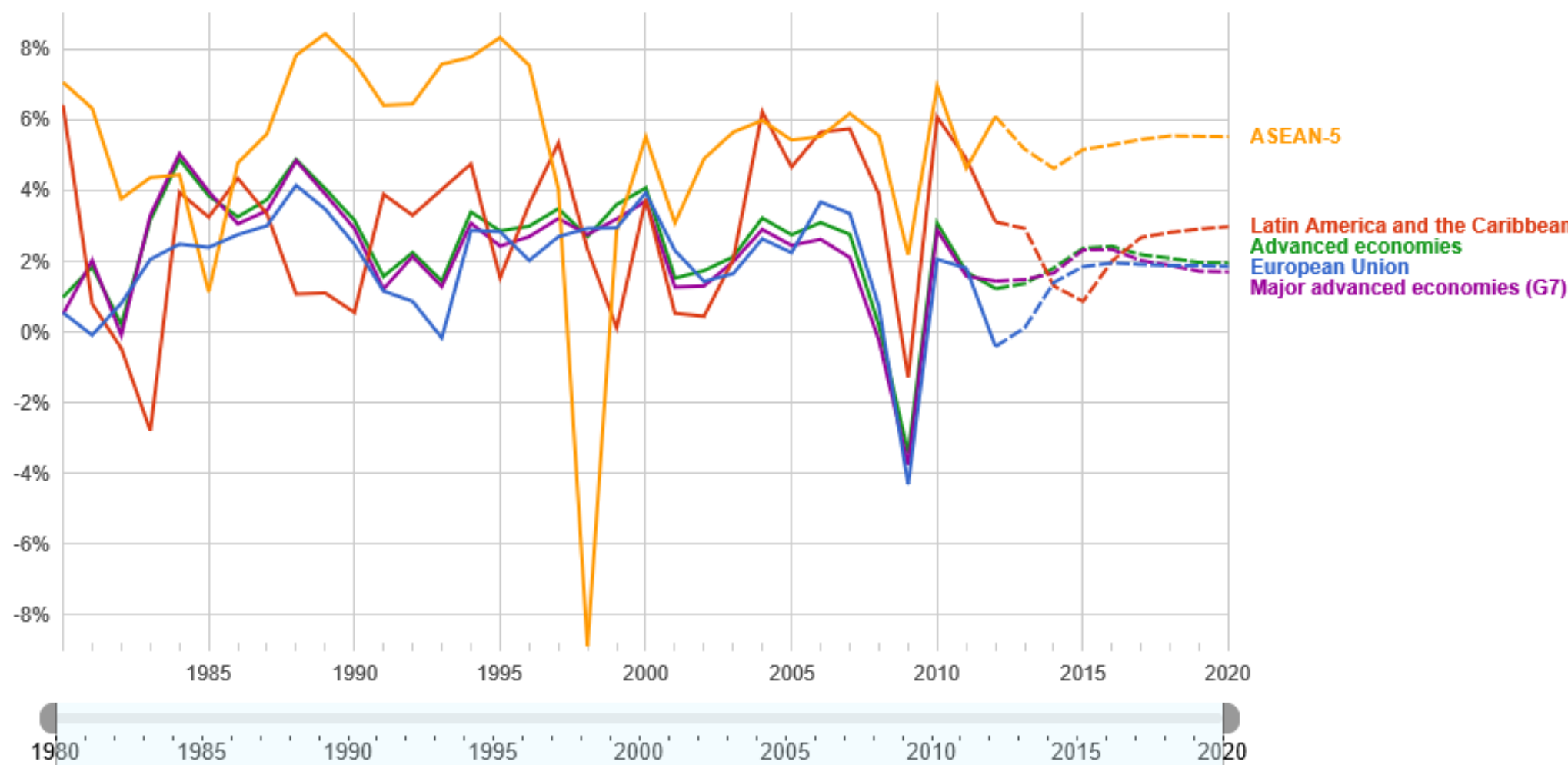
**Figure 2.16** The global map of merchandise trade

Source: calculated from WTO, 2012: Tables A6, A7





GDP, constant prices (% change) 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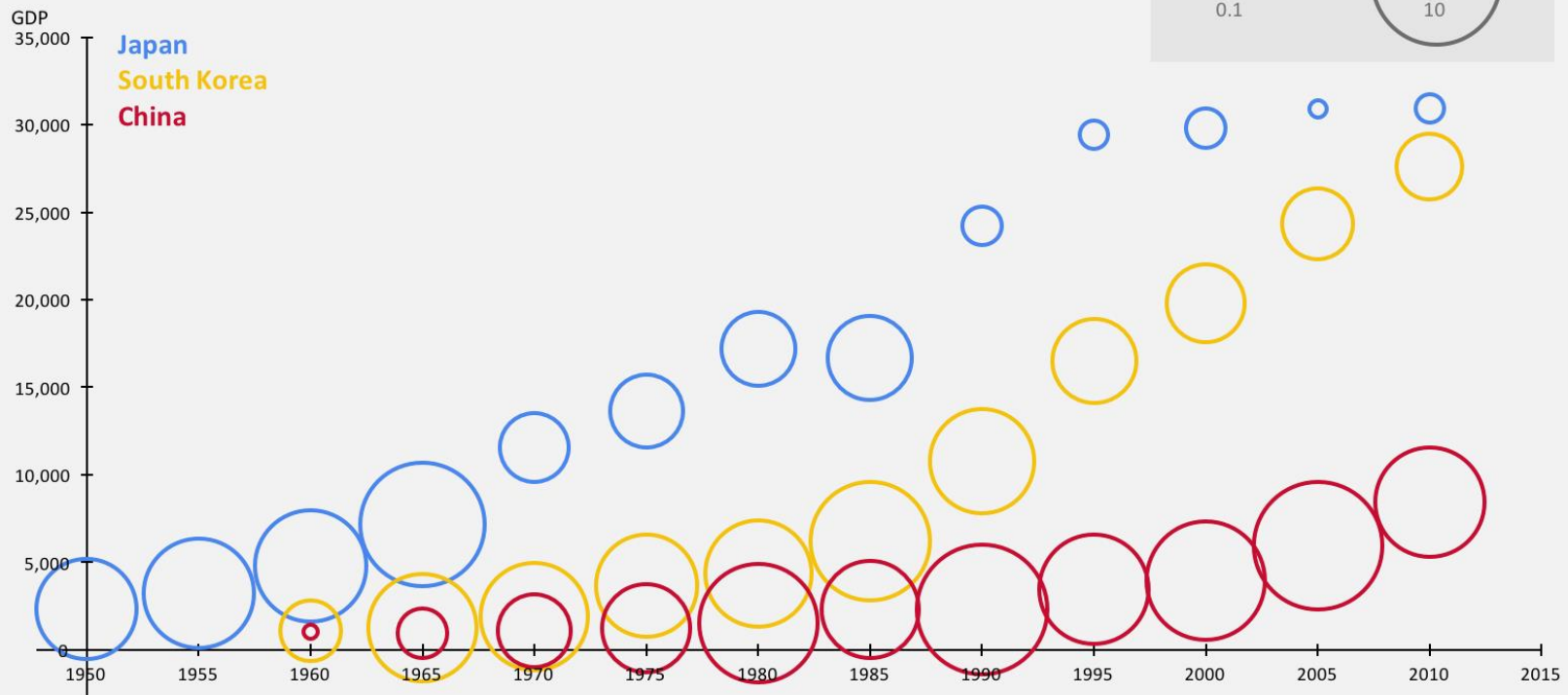


Data from [IMF](#), [April 2015 WEO](#) Last updated: Apr 15, 2015  
©2014 Google - [Help](#) - [Terms of Service](#) - [Privacy](#) - [Disclaimer](#) - [Discuss](#)

# 동북아시아 경제성장

## Asia's Growth Paths

Per capita GDP and GDP growth rates, select countries



Notes: left axis is per capita GDP in 2005 international prices; bubble size is per capita GDP growth rate, 5-year avg (%)

Source: The World Bank





# The EU

---

- ▶ 1957년 6개 회원국의 EEC(European Economic Community)로 출범한 EU는 현재까지 세계 경제블록 중에서 가장 발전되고 복잡한 경제체제로 발전
- ▶ 유럽연합의 기원은 1946년 당시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취리히에서 한 연설에서 시작됨. 이 연설에서 처칠은 유럽에 유엔과 유사한 기구의 필요성을 언급함.
- ▶ 1950년 5월 9일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인 로베르 쉬망이 공식적으로 유럽공동체에 대한 건의를 하면서 유럽국가들간에 공동체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었음. 이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5월 9일은 유럽일로 지정됨.
- ▶ 1951년 4월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 6개국은 석탄 및 철광석 채굴에 관한 조약(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)을 체결함으로써 유럽내의 시장을 장악하게 됨.

# The EU

---

- ▶ EU는 단순한 경제체제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.
- ▶ 그 이유는 EU는 경제적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이면서 정치적인 통합도 목표로 하였기 때문임.
- ▶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인 적대감이 더 이상 유럽에서 전쟁으로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와 당시 소련의 위협에 직면하여 서유럽의 국가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정치적 명분이 유럽공동체 형성의 시초가 되었음.
- ▶ 또 하나의 EU 추진배경은 미국의 신흥강국 부상에 따른 유럽지역의 경계심을 들 수 있음.
- ▶ 1,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의 중심은 유럽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이전되게 되는데, 이는 EU 형성의 또 하나의 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됨.



# 한국의 해외직접투자(억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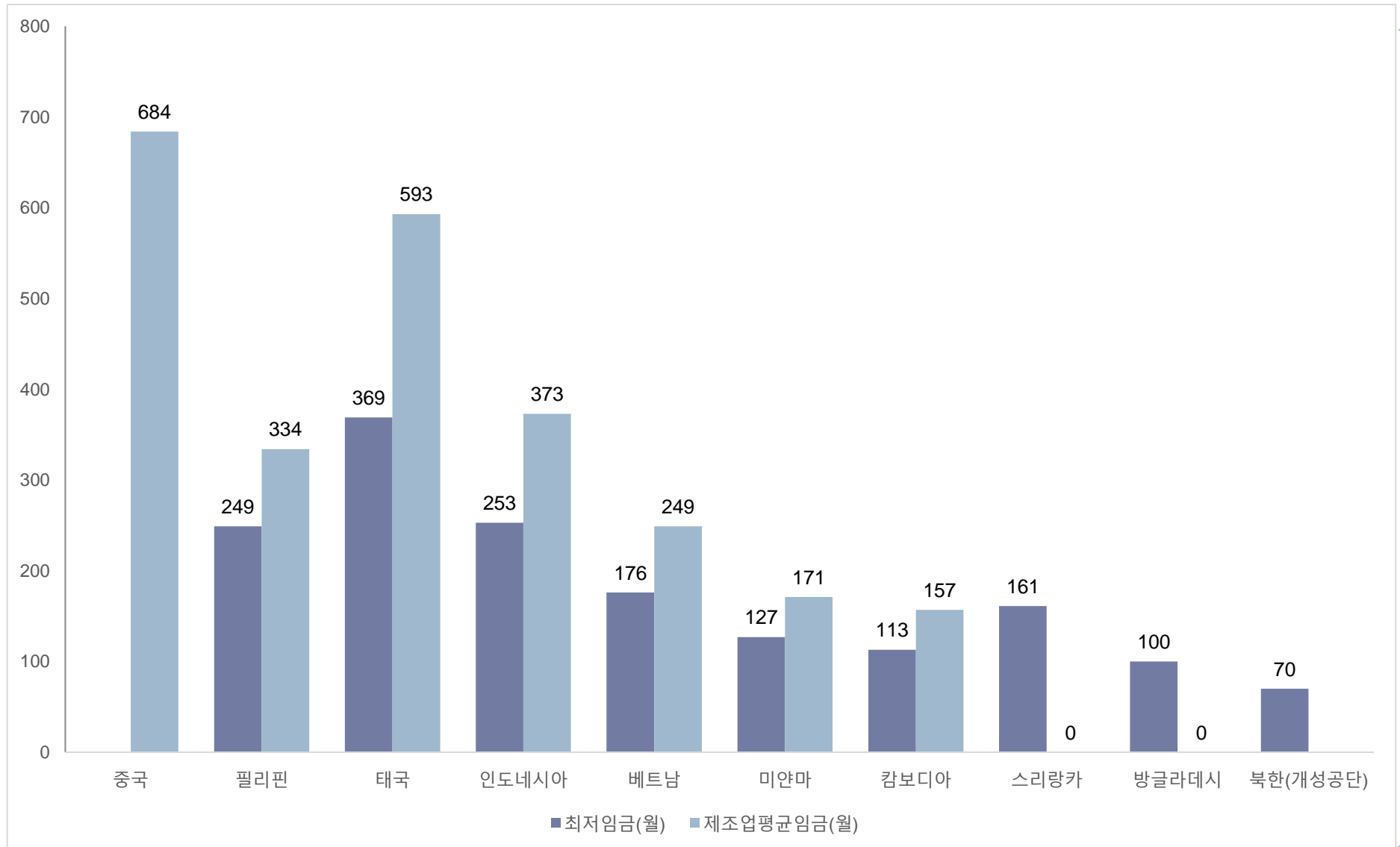
	2013	2014			2015		
	금액	금액	비중	증감률	금액	비중	증감률
<b>합계</b>	<b>356.4</b>	<b>350.0</b>	<b>100.0</b>	<b>△1.8</b>	<b>402.3</b>	<b>100.0</b>	<b>15.0</b>
아시아	119.3	109.8	31.4	△7.9	<b>166.2</b>	41.3	51.3
북미	67.4	107.4	30.7	59.3	<b>110.8</b>	27.5	3.2
중남미	68.6	48.3	13.8	△29.5	<b>65.1</b>	16.2	34.6
유럽	70.2	58.4	16.7	△16.8	<b>33.5</b>	8.3	△42.7
중동	3.6	9.2	2.6	158.0	<b>15.1</b>	3.7	64.2
대양주	23.6	14.1	4.0	△40.2	<b>10.3</b>	2.6	△27.1
아프리카	3.8	2.8	0.8	△26.2	<b>1.4</b>	0.4	△48.5

# 2015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현황

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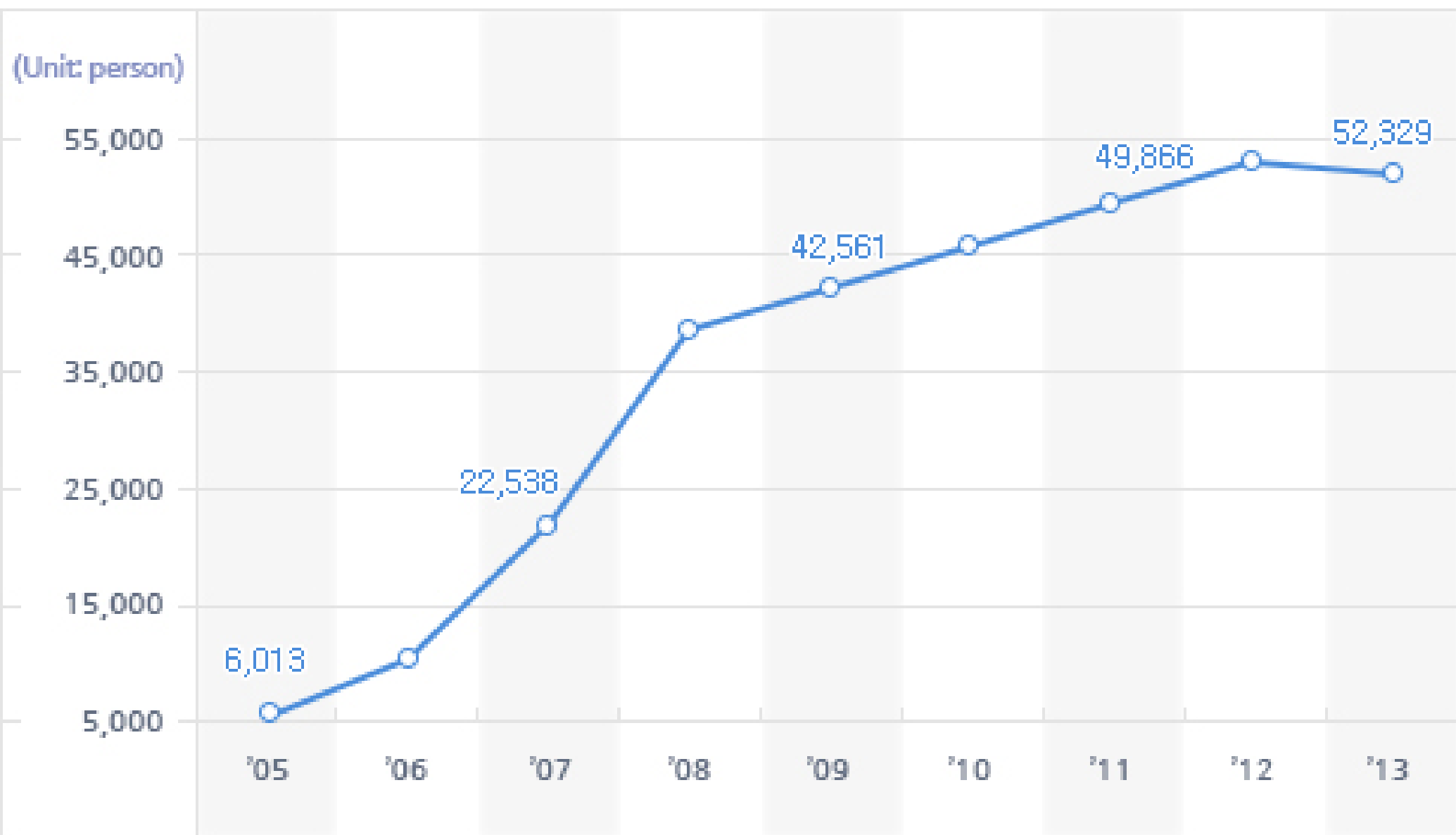
- ▶ '15년도 해외직접투자의 국가별 순위는 미국(104.2억불), 중국(43.0억불), 케이만군도(42.9억불), 홍콩(34.9억불)
  - ▶ 미국(13.0%), 중국(14.4%), 홍콩(222.3%), 베트남(36.5%) 등 주요 투자대상국에 대한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
  - ▶ (對 중국) 금융보험업 투자는 감소했으나, 제조업 및 도소매업 투자 증가로 전년(37.6억불) 대비 14.4% 증가
    - ▶ 對 중국 도소매업 투자: ('14) 2.7억불 → ('15) 3.0억불(10.2%)
    - ▶ 對 중국 제조업 투자: ('14) 29.4억불 → ('15) 34.5억불(17.2%)
  - ▶ (對 홍콩) 금융보험업 및 운수업 투자 증가로 전년(10.8억불) 대비 대폭(222.3%) 상승
    - ▶ 對 홍콩 금융보험업 투자: ('14) 2.6억불 → ('15) 24.7억불(865.5%)
    - ▶ 對 홍콩 운수업 투자: ('14) 0.1억불 → ('15) 4.0억불(5,012.2%)
  - ▶ (對 베트남) 제조업 및 광업 투자 증가로 전년(21.1억불) 대비 36.5% 상승한 28.8억불
    - ▶ 對 베트남 제조업 투자: ('14) 12.6억불 → ('15) 13.5억불(7.6%)
- 
- ▶ 18 對 베트남 광업 투자: ('14) 1.5억불 → ('15) 12.2억불(693.7%)

# 아시아의 임금 비교(USD/M)





<Figure 1> Number of North Korean Worker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



Source: Kaesong Industrial Region Support Foundation

# North-South divides

The two Koreas' share of:



**population**

2014, m

**political prisoners**

2013, '000

**life expectancy**

2010-2015, years

**average height**

5-year-old boy  
2002, cm

**calorie availability**

per person  
per day, 2011  
'000

**fertility rate**

2010-15

**median age**

2015 f'cast



**North Korea**

**South Korea**



**light emissions  
at night**

July 2012



**land mass**  
sq km, '000



**roads**  
latest, km  
'00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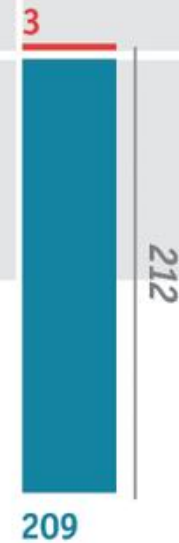
**railways**  
latest, km  
'000



**churches**  
2015



**skyscrapers**  
≥ 140 metres  
2015



**World  
heritage  
sites**  
2015





## \$ Economy

### GDP

2013, \$bn

30.7

1,300

1,330.7

### GNI per person

2013, \$ '000

1.2

26.2

## Industry & technology

### total trade

Goods, 2013  
\$bn

7.3

1,077.3

### iron-ore production

2013, tonnes  
m

5.5

0.7

6.2

### mobile phones

subscriptions  
2014, m

2.4

54.7

57.1

### CO<sub>2</sub> emissions

m tonnes  
2013

77

616

693

## Military

### armed forces

2015 f'cast  
m

1.19

0.65

1.8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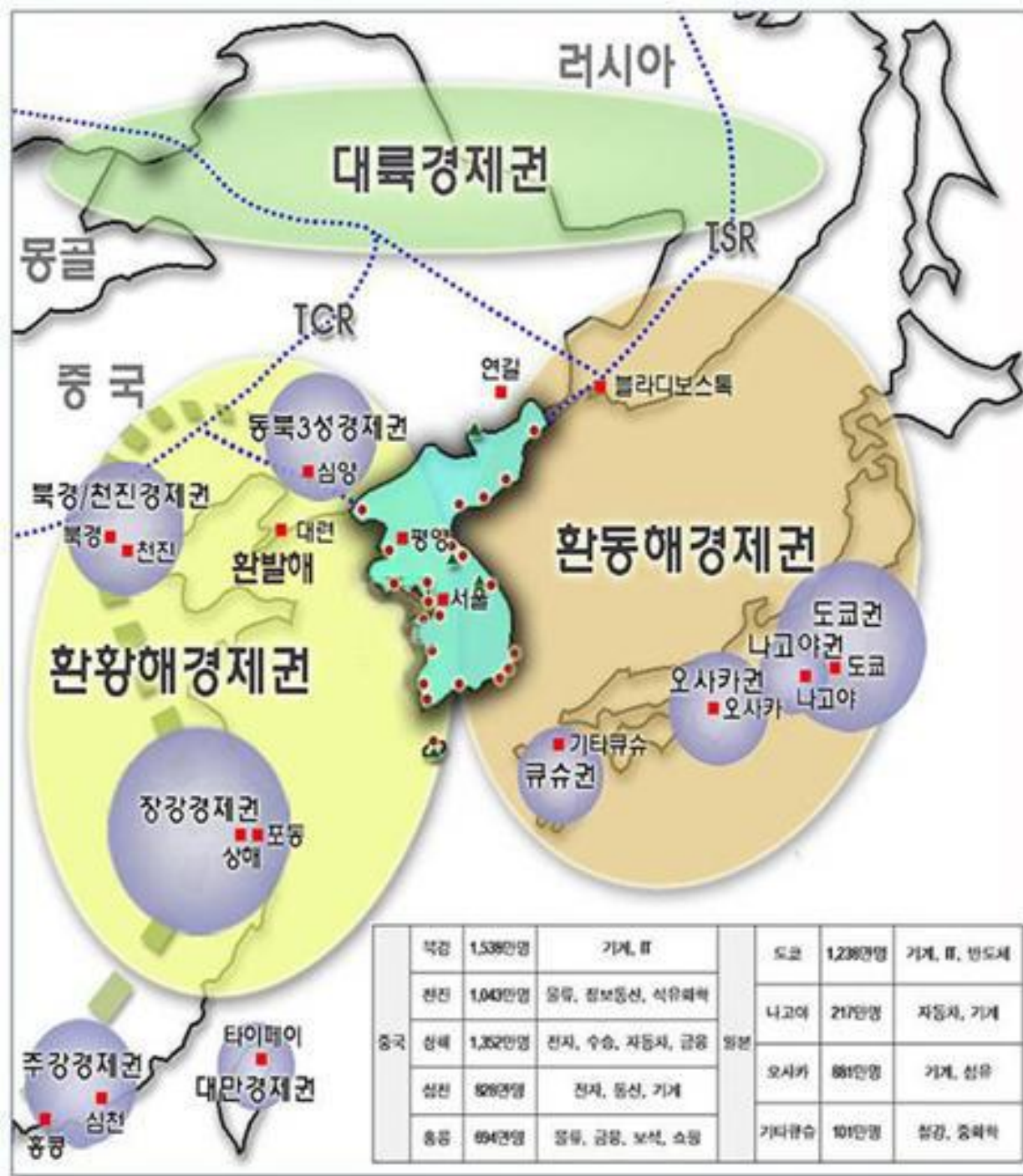
### nuclear warheads

2014, estimate

6-8

nil

Sources: UN; Daniel Schwegendiek; FAO; CIA World Factbook; Statistics Korea; Council on Tall Buildings and Urban Habitat; UNESCO; Bank of Korea; Orascom; Global Carbon Project; IISS; SIPRI; Thomson Reuters; press reports; *The Economist*  
Picture credit: NASA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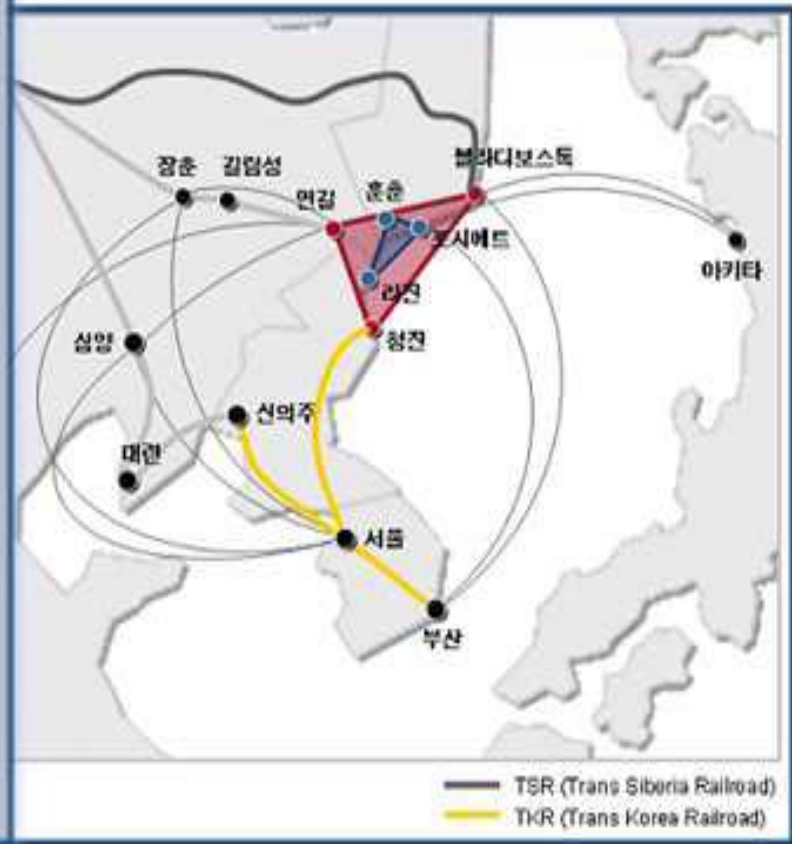












# 동북아 경제 협력

---

## 1. 기존의 논의는 주로 국지적 관점에서 접근.

- ▶ 개성공단, 나진선봉지구
- ▶ 한중 FTA
- ▶ 한일 FTA
- ▶ 한중일 FTA

## 2. 보다 거시적 관점의 경제통합 접근이 필요

- ▶ 북한(北韓)을 포함한 경제협력 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
- ▶ 한반도 긴장완화를 통한 세계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엔진 구축
- ▶ 한반도 주변 4대 강국의 이익 추구 (긴장관계 vs. 국제투자협력)

# 남북경제협력의 경제적 효율성

---

## ▶ 남한 국방예산 절감

- ▶ 2016년 일반예산 386.7조원, 국방예산 **39조원 (10%)**
- ▶ 보건복지고용 122조 9천억, 일반지방행정 60조 9천억, 교육 53조 2천억, SOC 23조 3천억, 농림수산식품 19조 3천억, R&D 18조 9천억, 공공질서안전 17조 5천억,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조 1천억..

## ▶ 북한 경제의 안정

- ▶ **9대1 경제 (국방 9: 국방외 1)**
- ▶ 8대 2, 7대3 경제로의 이전

## ▶ 2차적 경제효과

- ▶ 남북만의 언어, 문화적 통일성
- ▶ 저렴한 임금, 저렴한 물류비용
- ▶ 정치적 안전 및 경제활동 보장 필요(정경 분리)



# East Asian Union(EAU)

---

- ▶ 세계 경제의 ¼을 차지하는 3대 경제축의 하나.
- ▶ 전쟁과 갈등의 역사 보유
- ▶ EU의 경험을 통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마련
- ▶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한 직접적 경비 절감(국방예산)
- ▶ 남한을 비롯한 4대 강국의 자본투자와 북한 및 만주지역의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 결합
- ▶ 노동자본의 상생협력 관계 보장
- ▶ 한반도 평화지대를 통한 한민족 공생 발전 방안
- ▶ East Asian Union을 목표로 세계 경제발전 및 세계 평화 기여



Asia-wide Free Trade Zone  
Asean + 3  
Asean + 6 (RCEP)

# Obstacles

---

- ▶ 한반도 당사국 및 4대 강국의 이해관계 복잡
  - ▶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접전
  - ▶ 한반도 평화지대를 통한 이데올로기 분쟁 완충지대 설정
  
  - ▶ 한중일 당사국의 역사적 국경 갈등
  - ▶ 중국 또는 일본 주도의 경제통합은 패권주의 또는 제국주의에 대한 우려 존재
  - ▶ 한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체제 구축
  
  - ▶ 향후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역사적 화해 필요
  - ▶ 경제, 정치, 사회, 문화, 역사, 지리, 교통 등 다양한 분야 협력 필요
-

#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정책

---

- ▶ 오바마 2기 행정부 아시아태평양중시정책(pivot to Asia-Pacific Policy) – 재균형 정책(Re-balancing Policy)
- ▶ 중국 부상에 대한 대응 - 경제와 군사안보 분리 (two tracks)
- ▶ 군사적 측면: 아태지역 재균형정책 – 군사력의 직접적 개입보다 타국을 통한 견제 추구 (Offshore balancing)
- ▶ 경제적 측면: 중국의 잠재적 패권 도전에 대한 위협 존재



# 아태 중시 정책 군사적 측면

- ▶ 2차 대전 이후 냉전기간 - 미국 해외 주둔군의 70% 유럽
- ▶ 2010년 기준 유럽주둔군 72% 감소(79,940여 명), 아태지역 29% 감축 (111,114명) 유럽(42):아시아(58)
- ▶ 유럽 해군 98% 감축, 아태지역 25% 감축 – 비지상군 위주 전력 재편
- ▶ 미국 국방비 삭감 상황 – 일본에 대한 의존도 높아짐
- ▶ 중국의 군사적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 일본의 보통군사국가화 지원 (Offshore balancing)
- ▶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대해 일본과의 공조 요구
- ▶ 호주, 필리핀, 베트남, 싱가포르 등과 군사협력 강화

# 아태 중시 정책 경제적 측면

- ▶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력(TPP)
- ▶ 2002년 칠레, 싱가포르, 뉴질랜드 P3-CEP (Pacific 3 Comprehensive Partnership)에서 출발, 2005년 브루나이 합류 - P4
- ▶ 2008년 TPP로 개편, 미국 합류 이후 미국주도로 변환됨
- ▶ 미국, 일본, 캐나다, 멕시코, 페루, 칠레, 싱가포르, 브루나이, 베트남, 말레이시아 12개국 참여 다자간 FTA
- ▶ 전세계 인구 11%, 세계 GDP의 38%, 교역비중 25.7%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역
- ▶ 미국 주도의 세계 경제질서 구축 (지재권, 포괄적 시장접근, 공정경쟁 보장, 투자조치, 환경 등에서 높은 수준 요구)
- ▶ 중국참여-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에 편입
- ▶ 중국불참-중국에 대한 봉쇄 수단으로 작용

# 중국과 RCEP

---

- ▶ ASEAN(10개국)+3(중국,일본,한국)
- ▶ ASEAN+6(중국,일본,한국,호주,뉴질랜드,인도)
- ▶ 2012년 RCEP 공식 선언
- ▶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 인정, 참여국의 경제상황 고려, 단계적,점진적 개방 추진
- ▶ 중국 주도의 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체제 구축

# 동아시아 vs 미국 태평양정책

---

- ▶ 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 대두
- ▶ 남+북+중(요녕성, 길림성, 흑룡강성 등 동북 3성) 모델
- ▶ 북한: 개성공단과 유사한 개방형 국제투자협력 지역 개발
- ▶ 개성, 신의주, 나진, 원산 등
- ▶ 한반도 긴장완화와 경제적 협력을 통한 4대국의 이익 추구전략 필요
- ▶ 중국: 동해 물류진출 방안
- ▶ 러시아: 남방 물류확대 방안
- ▶ 일본: 대륙진출 방안
- ▶ 미국: 현상유지정책 vs 융화적 개입정책
- ▶ 미국의 전향적 정책 변화 필요



감사합니다.

발표자: 임재욱 [jaylim@kmou.ac.kr](mailto:jaylim@kmou.ac.kr)